

파크 하얏트 서울 달콤한 추억 선사할 디너세트

스시 오마카세, 칵테일 세트
아름다운 야경 '더 라운지'

파크 하얏트 서울이 오는 14일 밸런타인 데이 당일에 연인들을 위해 달콤한 추억을 만들어 줄 다채로운 식음료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코너스톤과 더 라운지는 각각 이탈리아, 모던 한식 6코스 디너 세트를 선보이며, 더 팀버 하우스에서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해 줄 스시 오마카세와 특선 칵테일 세트를 내세운다.

원목 인테리어로 따뜻한 분위기가 돋보이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코너스톤'은 6코스의 이탈리아 디너 세트를 선보인다. 웰컴 디셔로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인 푸아그라와 아몬드가 곁들여진 요리를 시작으로 랍스터와 관자를 올린 퀴노아 사과 샐러드, 완두콩 수프, 해산물 오일 파스타, 바라문디 생선구이, 꽃등심 스테이크, 디저트까지 포함한다.



호텔의 최고층인 24층에 위치해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하는 '더 라운지'는 모던 한식 6코스 디너 세트를 준비했다. 코스는 성계와 연어알을 올린 김부각이 아뮤즈 부쉬로 제공되며, 물김치 육수가 곁들여진 초계 무침, 제비추리를 비롯해 각종 재료를 채썰어 간장으로 양념한 한우 잡채, 제주산 한라봉 셔벗이 이어진다. 메인 요리로는 생선구이 혹은 한우 등심구이가 제공되며, 곤드레나물 솥밥 정식이 서빙된다. 보다 로맨틱한 순간을 계획하고 있다면, 얼리버드 밸런타인 데이 패키지에 주목해보자. /조효정 기자

디올의 과거와 미래 반영된 캠페인 공개

오브제들과 3020년으로 시간여행

럭셔리 러기지 하우스 리모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으로 제작된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디올(Dior)'이 디올 남성의 아티스틱 디렉터 킴 존스의 2020 여름 남성 컬렉션 광고 캠페인을 공개했다.

유명 사진작가 스티븐 마이젤이 촬영을 맡아 화제가 된 이번 캠페인은 '미래의 유물'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작품을 기반으로 킴 존스가 2020 여름 남성 컬렉션 쇼의 무대를 고안한 미국의 아티스트 다니엘 아삼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디자인한 컬렉션 실루엣과 액세서리를 조명한다.

킴 존스는 "이번 광고 캠페인에는 시간을 초월한 스타일리시한 방식으로 구현된 디올의 과거와 미래가 반영됐다"고 전했다.

이번 광고 캠페인 속 배경으로 등장하는 자동차는 전설적인 트롤로지 영화 시리즈인 '백 투 더 퓨처'에 등장하



는 시간 여행 자동차로, 미래의 고고학 자라고도 불리는 'Delorean'을 배경으로 스테인리스 스틸, 천공 퀴츠 크리스털 소재로 제작된 부식 처리된 조각품이 디올 코드와 유산을 현재와 결합하는 킴 존스의 컬렉션 테마를 드러낸다. 기존의 아이코닉한 아이템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킴 존스의 디자인은 액세서리의 형태로 새롭게 거듭난 크리스찬 디올의 주요 애장품인 전자기, 시계 등과 같은 오브제들과 함께 3020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스위스 그랜드 호텔, 컬러풀 건강식 선사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스위스 그랜드 호텔(구 그랜드 힐튼 서울)의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에이트리움'이 최근 세균이나 바이러스,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건강 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한 끼를 위한 '컬러풀 시르트푸드 샐러드 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29일까지 운영하는 '컬러풀 시르트푸드 샐러드 바'는 장수 유전자인 '시르투인'을 활성화하는 '폴리페놀'이 풍부한 메뉴 위주의 샐러드 바를 선보인다. 폴리페놀이 적당히 있으면 세포의 성장과 분화를 도우며,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을 해 건강 유지와 노화 방지, 질병 예방 효과에 탁월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극찬한 채



소로 유명한 케일을 비롯해 레몬, 딸기, 블루베리, 샐러리, 레드 차커리, 호두, 강황, 다크초콜릿, 레드 와인 등이 준비되어 있다. 여기에 신선한 씨푸드와 다양한 종류의 샐러드, 파스타, 해독 주스 등을 제공해 든든한 점심으로 손색없다. 본 프로모션은 매일 오후 12시부터 2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하며, 가격은 3만 원이다. /조효정 기자

“바이오 임상중단시 후속조치 공시”

계약·바이오 공시 가이드 라인

금융위 “투자위험 인지 어려워” 허가, 기술이전계약 등엔 주의문구

앞으로 코스닥 시장의 제약·바이오 기업은 공시기준에 맞춰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임상시험 중지, 시판중인 의약품의 허가 취소와 같은 주요 공시 정보는 모범 양식에 맞춰 작성한다.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이전 계약 관련 리스크 등에는 투자 주의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바이오 기업을 위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 업종은 전문적이고 복잡해 기업이 판단해 공시할 경우 충실도가 떨어질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위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제약·바이오 기업은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

도입·이전계약, 국책과제, 특허권 계약 등으로 분리된 카테고리에 따라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특히 임상시험과 같은 주요 공시정보는 제시된 모범 양식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주요 공시정보는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예컨대 임상시험 계획 승인사항의 위반이나 임상시험자 자료집의 허위 기재 등으로 규제기관이 임상시험을 중지한 경우 주요정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임상시험 중지 조치에 대한 상장법인 회신과 이에 대한 규제기관의 후속조치도 공시해야 한다. 또 상장법인이 임상시험진행의 중도 포기, 취소, 장기간 중지 등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해상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투자위험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통계적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약물이 최종 신약으로 허가받을 확률은 약 9.6%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는

기업 스스로 판단한 공시정보에만 의존해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이전계약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주의문구도 삽입한다. '임상 3상 승인을 위한 FDA 대면 미팅 예정' 등과 같이 투자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불확실한 정보는 공시를 제한한다. '임상 0상 승인'을 "임상 0상 계획 승인" 등으로 명확히 해 투자자의 오인도 방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약·바이오 기업의 충실한 공시가 투자자에게는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장에는 공시투명성이 높아져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월 중 코스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GC녹십자헬스, 디지털 헬스케어 판키운다

EMR 솔루션기업 1위 유비케어 인수
2088억 투자... 지분 52.7% 확보
2만3900여곳 B2C사업 플랫폼 보유

GC녹십자헬스케어가 국내 1위 전자무기록(EMR) 솔루션 기업인 유비케어를 인수한다.

GC는 자회사인 GC녹십자헬스케어가 유비케어의 최대주주인 유니머스홀딩스, 2대주주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각각 주식매매계약을 맺고 유비케어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인수는 GC와 재무적 투자자인 시넵틱인베스트먼트를 통해 GC녹십자헬스케어가 유비케어의 지분을 취득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GC녹십자헬스케어는 GC의 헬스케어 부문 자회사로

IT 기반의 차별화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전문 기업이다.

계약에 따라 GC녹십자헬스케어는 총 2088억원을 투자해 유니머스홀딩스와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유비케어의 지분 52.7%를 확보하게 된다. 자금은 GC녹십자헬스케어의 1600억 규모 유상증자와 500억 규모 외부차입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자회사의 헬스케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GC가 EMR 기업 인수에 뛰어든 이유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비케어는 국내 최초로 EMR을 개발한 기업으로, 전국 2만3900여 곳의 병·의원과 약국을 포함한 국내 최대 규

모의 의료 네트워크와 IT 기술을 활용한 B2C 사업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GC는 전통적 제약사업과 함께, 기능의학, 유전자검사, 진단검사, 건강검진 등 예방과 진단, 치료, 관리에 이르는 기존 사업 부문이 유비케어의 사업 역량과 융합되면 다양한 헬스케어 분야에서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C 관계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신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보다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C는 오는 4월까지 인수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

한미약품 영업의 1000억 첫 돌파... 매출 1.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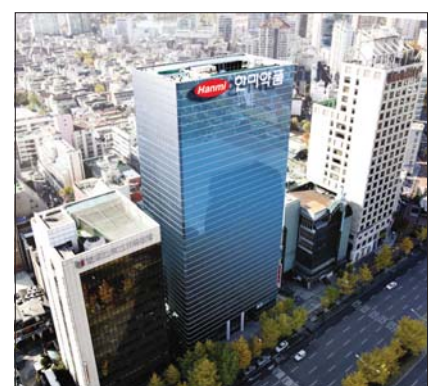
매출 전년 대비 10% 상승
전문의약품 매출 확대 영향

한미약품이 지난해 매출 1조113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10% 가량 상승한 수치다.

한미약품은 7일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4.3% 늘어난 1039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2015년 대규모 기술수출 이후 영업이익이 1000억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639억원으로 86.8% 늘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연구개발(R&D)에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 최고 수준인 2098억원을 투자했다. 지난해 매출액의 18.8%를 차지하는 규모다.

한미약품은 전문의약품 매출의 확대와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의



한미약품 본사

성장이 지난해 실적의 바탕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아모잘탄페밀리(고혈압치료복합신약, 유비스트 기준 981억원), 로수렛(고지혈증치료 복합신약, 773억원), 에소메졸(역류성 식도염치료 개량신약, 342억원) 등 차별화된 제품들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

북경한미약품 작년 매출은 전년 대비 11.5% 성장한 2544억원으로, 영업이익은 436억원, 순이익은 374억원을 달성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4%, 1.1% 증가했다. R&D에는 매출의 9.8%에 해당하는 250억원을 투자했다.

한미정밀화학은 전년 대비 29.3% 증가한 1103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86억원과 57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우중수 사장은 "국내외 경기 침체 기조에도 불구하고 한미만의 차별화된 자체 개발 제품을 토대로 안정적 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같은 안정적 실적이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의 순조로운 개발을 탄탄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